

# 페미니스트 현상학을 이용한 한국 유방암 환자의 질병체험

박은영<sup>1</sup> · 이명선<sup>2</su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sup>1</sup>, 교수<sup>2</sup>

Illness Experience of Women with Breast cancer in Korea: Using Feminist Phenomenology

Park, Eun Young<sup>1</sup> · Yi, Myungsun<sup>2</sup>

<sup>1</sup>Doctoral Student, <sup>2</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is to explore the illness experience of Korean women with breast cancer using feminist phenomenology.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rom ten women with total mastectom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method from feminist perspective to reveal implicit socio-cultural norms that oppress women with breast cancer. **Results:** Two categories and seven major themes emerged: cancer-related experience (1) unfairness of having breast cancer; (2) being confined to the gaze of the others; patriarchy-related experience (3) hardness of being daughter-in-law; (4) struggling to keep on being good mother; (5) continued housework as duty; (6) recognizing self as precious wife, and (7) awakening of true self. All participants felt it was very unfair to get breast cancer because they had done their best for roles of mother, wife, and daughter-in-law. They struggled to free themselves from the social disgrace like the roles imposed by the patriarchal society. By awakening their true selves, they could manage a balance between other-oriented life and self-oriented life. **Conclusion:** Oncology nurses need to provide psychosocial support for women with breast cancer in finding their true selves in a traditional patriarchal society where women are oppressed and breast cancer is stigmatized.

**Key Words :** Breast neoplasm, Mastectomy radical, Feminism, Life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에게도 유방암이라는 질환이 그다지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은 2001년을 기점으로 여성암 발생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10만 명당 37.3명에게 유방암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이

1995년 78%에서 2005년 87.3%로 10년 동안 9.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NCIC, 2009). 이는 유방암을 진단 받은 후 생활하고 있는 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방암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검증된 바와 같이 다른 암 종과는 달리 여성만이 경험하며 이종의 고통을 겪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Landmark & Wahl, 2002; Yoo & Cho, 2001). 즉, 암이라는 질환뿐만 아니라 여성성을 상징하는 유방의 질환이기 때문이다. 신체와 질

**Corresponding address:** Park, Eun Young,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Yungun-dong, Jongr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460, Fax: 82-2-740-8837, E-mail: eunyoung65@snu.ac.kr

\*본 연구는 대한질적연구학회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투고일 2009년 8월 11일 수정일 2009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 2009년 10월 8일

병에 대한 관념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유방암의 의미가 다르며(Howard, Balneaves, & Bottorff, 2007; Im, Lee, & Park, 2002; Lim, 2006; Thorn & Murray, 2000) 과 여성의 신체에 대해 과도하게 성적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는 여성의 건강, 특히 신체의 일부가 절제되거나 손상받게 되는 질환을 갖는 여성에게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Ha et al., 2008; Lim, 2006). Lee (2007)는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의 본질을 고찰한 후, 사회의 편견과 성적체성의 혼란을 본질 중 일부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로 인하여 여성들의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역할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유방암 여성에서의 우울장애는 유방암 관련 심리장애 중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유병률은 15~30%로 우리나라 유방암 여성에게도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Ha et al., 2008). 한편, 이러한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는 신체적 요인보다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Lee, 2007), 이는 우리나라의 가족구조 특성에 따른 원가족의 지지와 배우자지지, 그리고 자기존중감 등이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유방절제를 경험한 여성들의 우울이 성적 매력과 기능감소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는 보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Jun, 1994).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유방암 여성은 스스로가 지각하는 자기 정체성에 주 간호제공자인 원가족과 배우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의 유방은 여성성의 상징으로 희생적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이미지이거나,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 이미지를 나타내는 신체의 한 부분이었다면, 오늘날 유방은 모성적 의미보다 성적 의미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상을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외모 지상주의라 할 만큼 완벽한 외모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고 특히 여성의 유방에 성적 가치를 지나치게 부여하는 현대사회에서 유방암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의 삶보다 힘든 것은 당연할 것

이다. Lim(2006)은 유방을 여성의 성적매력을 대표하는 상징 부위로 부각시키고 완벽한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상화하는 요즘의 우리 사회에서의 유방암 환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갈등이 큰데, 특히 이들은 여성으로서의 상실감과 자격지심, 상대적 박탈감으로 위기감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학에서는 1990년대부터 유방암 여성들의 삶의 본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은 대상자가 처한 우리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여성이 갖는 독특한 상황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Jun, 1994; Noh, 2003). 1980-1999년 사이에 발표된 한국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내용 분석한 Im(2000)의 보고에 의하면, 남성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건강문제가 사회의 주류인 남성 관련 질병에 비해 연구적 가치로 이어지지 않거나 여성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반영되지 않았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방암 여성들의 질환 관련 경험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사회의 문화현상 속에서, 그리고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여성의 입장을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들을 제약하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완벽한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상화하는 현대의 사회 속에서, 유방암 환자들은 여성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의 입장과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접근(King, 1994)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한국 유방암 여성들의 질병 경험을 반추해 보고, 비판적으로 조사해 보며, 분석적으로 도출해내고자 한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의 삶이 한국 사회의 구조와 전통 문화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되어 한국 유방암 여성이 경험하는 질병체험의 본질과 구조를 탐색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방암 여성들의 질병 체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페미니스트 현상학적 연구이다. 여성이라는 존재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페미니스트 견해를 도입함으로써 유방암 여성들의 삶과 사상,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이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심층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자 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 2. 자료수집

연구참여자는 유방암 환우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모임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료 유방암 진단과 유방전절제술을 받고 치료가 종료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서면동의와 녹음에 대한 사전 동의를 득한 후 개인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했으며 모든 면담은 녹음되었고,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집 또는 참여자가 선호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소요된 시간은 개인당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이 소요되었다. 1회 면담 후 면담내용을 초기 분석한 후 필요한 3명의 참여자에게는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는 페미니스트 관점을 적용하여 Colaizzi (1978)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참여자가 표현한 의미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후에,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두 번째, 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절이나 문장에서 의미 있는 진술 267개를 추출하였다. 세 번째, 참여자의 구체적인 언어를 과학적인 언어로 변형시키기 위해 비슷한 속성의 의미 있는 진술들을 일반적인 형

태로 재 진술하였다. 네 번째, 도출된 의미를 15개의 주제와 7개의 주제군으로 조직한 후 원자료로 돌아가 진술의 의미를 다시 탐구하면서 원 자료와 주제군 사이의 일치를 검토하였다. 다섯 번째,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기술하였으며, 이때 모든 자료의 분석결과를 서술하여 통합하였다. 여섯 번째, 분석의 전 단계를 통해 도출된 의미의 기술을 바탕으로 본질적인 구조를 진술하였다. 분석과정을 통해 드러난 본질적인 구조가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4명의 참여자에게 확인하여 타당화하였다.

### 4.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는 Guba와 Lincoln(1981)이 질적 연구를 위해 제시한 신뢰성(credibility), 감사가능성(auditability), 적합성(fittingness), 그리고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의 4가지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유방암 여성과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괄호치기(bracketing)하면서 참여자들의 표현 그대로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참여자를 만나려 노력하였다. 면담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개입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되었고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결과의 1차 분석을 동료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과정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감사가능성은 연구자가 연구과정에 일관성이 있고 안정되게 관여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Coal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그대로 따랐으며, 결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감사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적합성을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 등을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다른 비슷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확인가능성은 연구결과의 중립성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감사가능성, 그리고 적합성이 확립됨으로써 얻어졌다고 본다.

### III. 연구 결과

####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10명의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여성들이다. 평균 연령은 50.9세(40~60세)이며, 기혼이 7명이고, 이혼, 사별, 미혼이 각각 1명이었다. 수술이후 기간은 평균 5.3년(2~9년)이었으며 복원수술을 받은 참여자는 없었다. 직업을 가진 참여자는 3명이었으며 7명은 주부였으나 이 중 2명은 유방암 진단으로 직업을 그만 두었다.

#### 2. 주제모음

총 10명의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여성의 질병체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페미니스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267개의 의미 있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추출한 후, 이에 대하여 연구자가 의미들을 형성하였다. 그 다음 비슷한 의미들을 묶

어 1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7개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암과 관련된 경험과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경험으로 나누어진다.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은 여성들이 유방암을 경험하면서 사회가 주는 암에 대한 편견과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인 전통적인 우리나라 여성의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타자 지향적 자아-즉, 엄마, 아내, 며느리-로 인식해 왔던 것으로부터 놀려있던 자아 지향적 자아가 회복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Figure 1). 도출된 주제는 암과 관련된 경험의 2가지 주제인 (1) 유방암 발병의 부당함 (2) 타인의 시선에 갇힌 존재 와 가부장적 사회와 관련된 경험의 4가지 주제인 (3) 부당하게 요구되는 며느리 역할, (4) 피할 수 없는 모성, (5) 여전히 가사 일은 내 몫, (6) 소중한 아내인 나, 그리고 자아회복의 주제인 (7)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삶의 여정이다

#### 제1주제: 유방암 발병의 부당함

유방암에 걸린 것에 대한 ‘부당함’은 모든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이었다. 참여자들은 ‘유방암’이라는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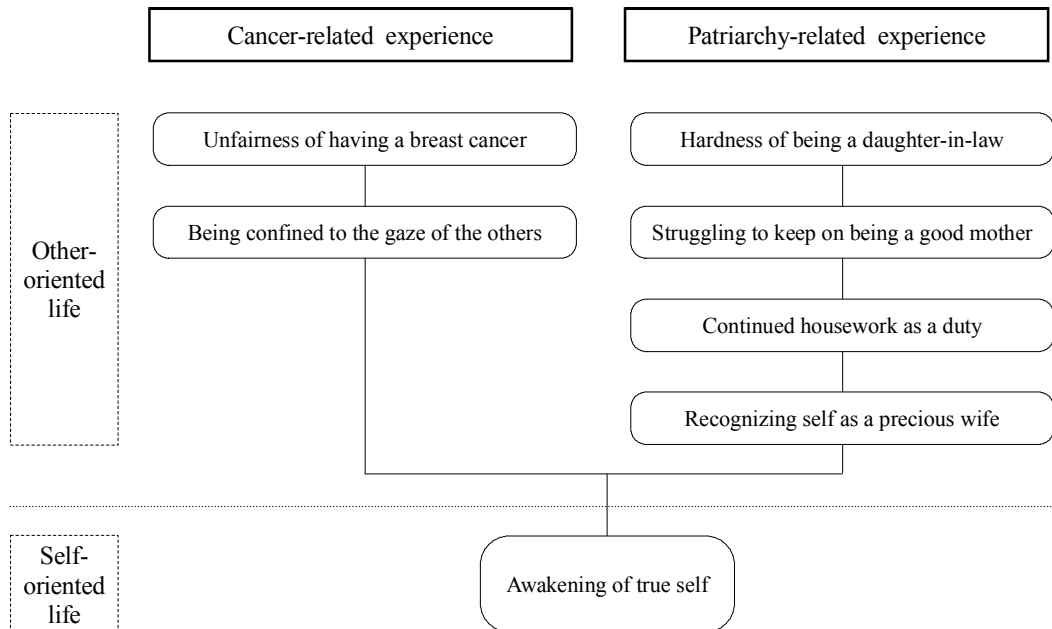


Figure 1. The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 of Korean women with breast cancer

리를 처음 들었을 때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과 함께 거짓말 같고,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등 자신이 유방암에 걸린 것이 믿기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일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는 다시 두 개의 주제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신에 대한 원망”으로서 이는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당함을 나타내고, “원인의 탐색 및 전가”는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부당함을 표현하고 있다.

(1) 신(神)에 대한 원망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하게 되면, 많은 경우 신(神) 혹은 초월적인 존재에게 질문을 하고 원망하게 된다. 본 연구참여자들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한 벌을 받아야하는지 고통스러워하였다. 이러한 원망은 분노로까지 확장되어 그동안 잘 수행해 오던 종교생활조차도 무의미하게 되었다.

신랑 하늘로 갔을 때보다 더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나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시련을 주는지 원망도 생기고... 그 때는 신앙도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신이 날 떠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F)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 분노 같은 게 생겼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분노가 생겨서 (A)

(2) 원인의 탐색 및 전가(轉嫁)

실제 의학적으로 유방암의 발병 원인의 대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유방암에 걸리게 된 이유를 나름대로 찾게 되었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참여자들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은 유난히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고, 타인들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이 원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내가 속이 상해도 이렇게 막 퍼붓고 이래야 하는데 많이 참는 성격이거든.. 내가.. 내가 말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왔

어.. 이게 100% 스트레스란다 내가 그랬거든 (E)

그런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타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자신들은 사회와 가족이 기대하는 대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암이라는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가부장적인 제도내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즉 엄마, 아내, 며느리, 그리고 이웃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충실히 살아왔다고 여기기 때문이었고 그러기에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 가족원들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남편이나 시댁, 특히 시어머니가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이었다. 이렇듯 유방암 발병의 원인이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 탓으로 받아들이면서 유방암이라는 몹쓸 병에 걸린 것은 무척 억울하고 부당하였다.

전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면 시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시어머니랑 그런 갈등 때문에 술을 먹고 그걸 화풀이 못하니까 저한테 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안 시켰으면, 남편이 안 그랬으면 암 안 걸렸을텐데.. 처음에는 진짜 많이 원망했어요. (G)

제2주제: 타인의 시선에 갇힌 존재

이 주제는 질병 세계 속에 갇힌 참여자들의 거북스런 삶을 드러낸다. 즉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암 환자를 향한 편견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생활에서의 자유로운 행동의 구속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참여자들에게 암이란 몹쓸 병에 걸린 수치스러움에서 더 나아가 ‘가슴 하나 없는 여자’로서 서럽게 살아가야 하는 굴레를 표현하고 있다.

(1) 암 환자만의 다른 세계

‘다른 세계’는 유방암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질병 세계를 나타낸다. 정상인이었을 때에는 보통의 일상이었던 세계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후, 이런 세계가 있었나? 싶을 만큼 아주 두렵고 낮은 긴 터널의 질병 세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암’이란 말을 듣는 순간 참여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혼자만 정지

해 버린 듯한 느낌, 바닥까지 내려간 느낌, 암흑 같은 캄캄함, 그리고 죽음이 내 옆에 바짝 다가와 있는 세계에 홀로 서게 되었다. 따라서 우선은 혼돈스러워 하였고, 서서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타인들로 인해 당황함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수치스러움도 느끼게 되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마치 자신이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 혹은 박제된 동물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질병 세계에 갇힌 채 소통할 수 없고 따라서 버림받은 자신에 대한 서글픔과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외로움으로 우울과 절망감까지 겪었다.

내가 그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경험이 드는 거예요... 암 환자만이 갖는 절망적인 그 다른 사람..어떤 사람과도 나눌 수 없는 이런 무력감과 절망, 어떤 좌절감이 많이 있잖아요. (A)

## (2) 몹쓸 병에 걸린 나

이 주제는 우리 사회가 갖는 암 환자에 대한 갖고 있는 편견에서 비롯된 경험을 드러낸다. 참여자들은 남과 다른 시선, 즉 “당신은 암 환자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선이 모든 참여자들은 치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즉, 참여자들은 자신이 ‘암 환자’ 라고 알려지는 것을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된 존재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참여자는 자신이 유방암 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 머리가 빠지거나 외모가 변해 있는 동안에는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심지어 해가 진 이후에야 운동을 하러 나가는 등 다른 사람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였다.

누가 볼세라 구석자리에서 샤워를 하는데 안 보이려고...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때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정말로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나와서 옷을 입는데 아까 그 분이 나와서 힐끔힐끔 쳐다보는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가족들이 '괜찮아 언니' 이러는데

서럽더라고요. (C)

항암치료 10번 하는 동안 대문 밖을 안 나갔죠. 우리 저장독대에도 빨래를 너는데, 빨래를 너는 것도 애들하고 저 아빠가 다 했던 거예요. 나가기 싫은 거죠. 사람 대하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 앞집에서도 내가 아픈 줄을 몰라요. (E)

심지어 이들은 시댁이나 친척들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자신이 암 환자인 것으로 인해 친정이 ‘이상한’ 집안으로 오인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었다. 암을 진단 받은 것에 자격지심(自激之心)을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모시던 시어머니가 참여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자며느리 수발들겠냐며 시골로 내려가시는 것과 같은 시댁 가족들로부터 배려 받지 못한 경험이 참여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

## (3) ‘가슴 하나 없는’ 서러운 여자

여성성의 상징인 가슴을 절제한 참여자들은, 요즘처럼 여성의 완벽한 외모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에서 완벽하지 못한 존재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본인 스스로도 유방전절제술 후 붕대를 풀었을 때 느껴지던 그 ‘헝’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경험이었다. 남편이나 가족은 고사하고 스스로에게도 자신의 없어진 가슴을 보여 줄 수 없는 수치심을 경험하면서 ‘가슴 하나 없는’ 여자로 살아야한다고 서러워하였다. 샤워할 때 등 밀어주러 들어온 남편에게도, 심지어 성생활 중에도 가슴은 보여줄 수 없었다.

집에 가서 거울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외계인 같더라고요. 제가 목욕탕엘 못가요. 싫어요. 딴 사람들은 수건으로 이렇게 하고 간다는데 저는 그게 안되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남들은 두갠데 난 하나구나... 이게. 이게 서글픈 생각이 ...남들은 두갠데 난 하나구나.. (D)

지금도 부부관계를 할 때 상의를 벗지 않아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어깨가 아프고 해서 가꿈 등을 밀어주는데 그럴 때는 뒤돌아서서 등만 밀어주고 얼른 나가라고 해요. (C)

한편,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유방암 진단을 받은 미혼 참여자와 이혼 참여자는 한쪽 가슴이 없는 것이 이유가 되어 결혼과 재혼을 못하게 되었다. 결국 가슴 없는 여자는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총체적인 상실로 이어졌다.

제가 그 결혼하려고 할 때 그 사람도 이렇게 좀 가슴이 없어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싫어했어요. 처음엔 괜찮다 했는데 나중에 그런 모든 이유 때문에 헤어지게 됐는데... (A)

가슴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힐끗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을 느꼈을 때는 참여자들은 서러움을 넘어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시선은 마치 자신을 꼼짝할 수 없게 묶는 사슬과 같다고 느꼈다.

### 제3주제: 부당하게 요구되는 며느리 역할

기혼 참여자의 대부분은 진단 이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고자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진단받은 이후에는 가장 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수술과 항암치료 중에는 시댁이나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되도록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치료가 끝난 후에 시댁과 남편이 다시 이전의 역할을 요구해오게 되었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표현하기 힘든 버거움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 내재된 ‘여자니까 참아야 한다’는 주위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서서히 사회에서 요구하는 며느리 역할에 저항하며 분노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발은 시어머니나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기었다. 한편, 미혼이거나 사별한 참여자는 시댁과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자신들이 더 나은 처지라고 여기고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큰 아들은 아닌데, 예전에는 제가 잘했어요. 처음 수술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나도 살아야 하는데 시댁 가족들이 그걸 몰라주더라고요. 예전처럼 다 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전처럼 할 수가 없다고 과감히 시위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

니가 가족들한테 이간질 많이 했어요... 한 3달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재발했어요. 그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잘 해왔던 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C)

반면, 극히 일부에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통적이고 고정된 고부 관계에서 벗어나 새롭고 유연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한 참여자는 유방암이 재발되어 재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시어머니는 자신의 박복(薄福)을 수용하며 며느리의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도 하였다.

### 제4주제: 피할 수 없는 모성

아홉 명의 모든 기혼 참여자들은 유방암으로 인한 모성 역할의 제한으로 크게 고통스러워하였다. 잘 알다시피 ‘모성’은 자식을 가진 여성에게는 본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른 어떠한 가족관계보다 강한 결속력을 가진 자식은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보다 더욱 소중한 유일한 대상이었고 따라서 자녀와 헤어진다는 것은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컸다. 이러한 강한 모성은 유방암 여성들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하는 가장 심한 고통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모성은 궁극적으로 투병 의지를 불태우는 원동력이 되었고, 암은 모성을 강하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 (1) 자녀에 대한 연민

유방암 여성들은 진단과 치료에 임하면서, 특히 수술장에 들어갈 때, “나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엄마만의 가슴앓이를 경험하였다. 혹은 자식들이 받을 충격을 염려하여 자신의 질병을 알리지 못하기도 하였고, 자식에 대해 못할 짓을 한 것 같은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었다.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처음 진단을 받는 순간과 수술장에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자녀들이었다.

애들... 애들이 그 때 결혼을 안했거든요. 어머 재네들 나 없이 보낸다는 게 안됐더라고요... 남편 생각은 나중에, 조금 지난 다음에 들더라고요. (H)

(2) 자신의 행복을 담보로 한 자식의 미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과 치료를 걱정하기에 앞서 자식들의 앞날을 먼저 염려하였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을 결심하기도 하고, 남편과 자식 간의 갈등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조정해 주기위해 아이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 독립시키는 엄마, 자신의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가지면서도 자식들 자랄 때까지 지켜줄 수 없을지 모르는 미안함에 보험에 들어놓는 등,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식들의 장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딸을 둔 참여자들은 자신의 유방암이 딸의 장래에 먹구름이 될까봐 노심초사하였으며, 행여 결혼에 지장은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주변에 속시원하게 자신이 투병중임을 밝힐 수 없었다.

아빠랑 함께 사는 것을 적응시켜주고 죽어야겠구나... 내가 그 남편을 너무너무 싫고 밉고 싫는데 내가 하나 포기 하면 우리아이는 좀 안정되고 행복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 남편과 재결합 문제를 갖고 고민 했어요. (B)

우리 딸이 지금 미국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아팠으면 개 안 보냈어요. 엄마가 있는데도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만약에 엄마가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는 보냈어요. (E)

(3) 회복의 의지를 일깨워 준 모성

모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을 없애는 것이다. 유방암 여성들도 모성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함으로 인해 신음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모성은 또한 유방암 여성의 투병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암이라는 질병을 통하여 자신의 모성을 강하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자식을 성인이 될 때까지 길렀다는 역할 완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쉽게 가질 수 있었다. 자녀를 둔 참여자 모두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살고 싶다는 미래에 대한 바람과 함께 엄마로서 자식에게 누(累)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집념을 갖게 되었다. 살아야 하는 많은 이유들에서 가장 소중한 이유는 모성이었다.

제5주제: 여전히 가사 일은 내 몫

기혼의 한국여성에게 가정 내의 주부역할은 누구나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유방절제술을 하고난 참여자들은 암 환자라는 정신적 충격과 가슴하나를 잃었다는 여성으로의 정체성 혼란 속에 지내면서 수술로 인한 팔의 사용 제한과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적인 증상까지 겪고 있었다. 이러한 실제적 상황에서도 가족들의 가사 분담은 일부에서만 흡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남편의 극적인 변화가 치료중인 참여자들을 가사일로부터 어느 정도 부담감을 덜어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가사 일은 여전히 주부인 자신들의 몫이었다. 마음으로는 아내를 이해하고 위로하면서도 신체적으로 제한으로 인한 가사 노동의 제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가사 일 중에 참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냄새를 맡아야하는 주방의 일이었다. 그러나 많은 남편들은 주방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항암치료 중에도 식사준비를 해야 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서럽다’라고 하였다.

항암치료 받고 3일 동안은 너무 힘들어서 대충했어요. 딸내미가 밥하고 자기네끼리 라면도 끓여먹고, 그리고 3일 지나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다 하고... 그 때 우울증이 왔어. (I)

우리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가된 가사노동에서 참여자들은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유방암 치료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자신들이 음식을 제 때 제대로 준비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남편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제6주제: 소중한 아내로서의 나

대부분의 기혼 참여자들은 아내라는 역할의 소중함을 망각했던 자신의 존재를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다. 유방암 진단 이전에는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남편이 시댁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참여자들은 남편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여



기었고,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런 남편의 태도에 대한 반발로 집을 나가거나 이혼을 결심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자, 남편과 함께 참여자들 역시 아내 역할에 대한 재정립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주부로서의 역할에 묻혀있던 아내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그동안 아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며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여기던 가부장적 제도속의 남편의 완강했던 태도가 바뀌게 되면 서서히 아내의 소중함을 남편과 함께 깨달아가고 있다.

남편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 전에 가출하고 그랬을 때는 그걸 몰랐죠. 자식 밖에... 그런데 자식은 자식이고 그거 아플 땐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D)

기존의 고압적인 남편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소소한 가사일과 투병 과정의 병원을 오가는 일까지 남편은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보살피는 자상한 남편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이제 남편은 지지자요 든든한 보호자로 다시 아내 곁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우리아저씨가 10개월 동안 밥 다 해먹고 청소 다하고... 좋은 거 사서 먹여주고, 저녁에 입맛 다실게 없으면 뭐라도 깎아서 머리맡에 놔두고 출근해요. 우리 신랑이 이건 책에 다 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해줬어요... 한번도 나 혼자 피검사하러 온 일이 없어요. 가슴사진 찍는 것도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 해주고. (E)

또한 남편은 시댁의 스트레스가 아내에게 오지 않도록 바람막이 역할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남편의 변화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남편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투병 의지를 북돋아 주는 남편, 함께 울어주고 마음 아파하는 남편의 존재는 아내로서의 행복함을 만끽하게 하였다.

수술하고 나선 시어머니가 한번도 안 오셨어요. 오시면 저는 동생네 집으로 가 있겠다고 해서.. 그런데 꼭 어머니

는 우리 집에 와 있겠다는 거예요. 남편도 이제 알아서 협조해 줘요. 엄마 오지 마 하고 차단을 해줘요. (C)

그러나 모든 남편들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수술 당일 평상시와 다름없이 퇴근하고 오느라 수술시작 전에 병원에 도착하지 않는 남편도 있었고, 치료 후 공주병에 걸렸다면 자신을 찾아가는 아내에게 여전히 이전의 수고를 요구하는 변하지 않은 남편도 있었다. 이런 남편 때문에 아내인 참여자들은 가슴에 서러움을 쌓게 되기도 하였다.

### 제7주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삶의 여정

유방암을 경험한 여성들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가고 있었다. 좋은 아내, 착한 며느리, 좋은 엄마로 살면서 깊게 묻어 두었던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였다. 신체의 일부를 잃어봄으로써 나보다 더한 장애를 가진 이를 이해하게 되고, 죽음의 문턱을 왕래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지금까지의 삶이 타인이 부여해 준 나의 역할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돌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였다.

#### (1) 암과 더불어 살아가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명은 재천(人命在天)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유방암 여성들도 처음에는 부당함과 원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오래지 않아 유방암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비록 아직도 치료의 반응이나 재발에 두려움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는 초조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래도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지금은 운명으로 생각하고, 시어머니랑 남편 때문은 아니었겠지... 걸릴 거니까 걸린 거지... 이젠 다시 살아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G)

하필이면 걸로 드러난 유방암인 것이 너무 속상하

기도 했지만, 자신보다 더한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자신은 옷만 입으면 감출 수 있고 특별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갖지 않은 것으로 인해 다행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나아가 이제는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다가감으로써 타인의 ‘힐끗’ 보던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당당함, 그리고 외모도 수용하고 개방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신있게 유방암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날 보면 어떡하지?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옹크리고 들어가니까 건강한 타인이 볼 때도 옆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군수군하는 건 당연해요. 내가 확 개방해 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머니, 수술하셨어요? 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F)

## (2)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

유방암 여성들은 치료를 마친 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갖게 되었다. 건강의 중요성을 체험한 이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 방안과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였다. 건강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발 받는 자신들의 성향이 유방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유방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웃음치료를 찾아가며 소리 내어 웃는 연습도 하고, 일에 지쳐 못해봤던 메이크업도 배웠다. 남편에게도 내가 원하는 것과 싫은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성격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바꾸려는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남들은 모르지만 스스로 한쪽 가슴이 없으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런 걸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전 절제 하고나서는 적극적으로 웃음치료를 찾았어요.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C)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자신의 건강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 매일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말과 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 넘기려 애쓰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이나 나한테 상처주는 얘기는 던지는, 안 듣고 여념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신경 쓰는 것은 절대 하기 싫어요... 그냥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지. (E)

이전에는 나를 위한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한 일이지만, 이제는 나의 건강을 위하여 유기농 재료를 준비하고 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싫던 운동이지만 이것 역시 건강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었다.

## (3) 가치로운 삶의 재발견

사람들은 인생의 큰 사건을 겪으면 그것을 통해 성장한다고 한다. 참여자들도 유방암을 통해 결국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다고 진술했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감사함을 온 몸으로 고백하였고, 살아있음에 그리고 매일의 일상에 감사를 경험하고, 자연의 변화에도 감사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유방암 진단 이후의 삶을 새롭게 부여받은 시간으로 표현하며 이 시간을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 하였다. 비록 진단받았을 때에는 신과 가족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차츰 신앙을 통해 성숙해짐을 경험하고 남에게 베푸는 삶의 실천하였다. 나눔을 통해 자신이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상처 난 존중감은 회복되었다. 즉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는 삶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들에게 유방암은 오히려 감사한 경험이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옷 갈아입을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데 작은 것도 무조건 다 고마운거예요. (F)

내가 행복한 이유는 이 수술 자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에는 별루었는데, 그게 제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 사람의 시정을 점점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A)

(4) 기성 틀을 넘어선 주도적인 삶

참여자들은 유방암을 통해서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여성으로서 우선시 해온 어머니, 며느리, 아내로서의 역할을 뒤로 하고,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우선시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동안 억눌렀던 자신의 욕망, 배우고 싶었던 것들,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탄다든가 컴퓨터를 배우는 등을 실천하면서 타인으로 인한 삶이 아닌, 나로 인한 진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하여 여성에게 구속 지워진 가부장적인 사회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유방암이라는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 자신을 발견하고 동시에 스스로 대견스러워하였다. 이러한 자신감을 통하여 타인과는 ‘다른 세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지평의 ‘자유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자신을 옹매이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전에는 남편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데로 해요. 우리 아저씨가 이해심이 부족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이해해 주고. 자식들도 그렇고 (G)

또한 참여자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는 성(sex)의 이분적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도 남성도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해갔다. 따라서 과거에는 외모를 가꾸고 화장을 하는 것이 남성의 시선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성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표현으로 인식하였다. 즉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한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드디어 자유로운 당당한 인간으로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인제 뭐 다른 성이예요. 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뭐

그런 성을 떠난 거예요. 인제 떠났어요. 이걸 떠나버려 가지고 이제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A)

IV. 논 의

본 연구자는 페미니스트 현상학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 유방암의 치료를 위해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의 질병체험의 본질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유방절제술 여성이 경험하는 우리사회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사회로 체험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경험본질로 2개의 범주에 7가지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암과 관련된 주제로 도출된 2개의 주제는 사회가 암환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개인이 자각하는 암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 유방암 여성들은 암 진단 이후 기존의 일상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계는 Jun(1994)의 유방 상실감-저항기와 유사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암은 아직까지 낙인(stigma)을 동반하고 있다(Harcourt & Frith, 2008). 유방암 여성들은 암에 대한 낙인에서 더 나아가 여성성의 상실감과 함께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암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이중적 시각, 전통적인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 그리고 여성의 완벽한 외모에 가치를 부여하는 현대사회가 이들을 가두고 있음을 드러낸다(Harcourt & Frith, 2008; Jun, 1994; Lee, 2007; Lim, 2006).

Lim(2006)은 유방암 여성이 경험하는 몸의 손상에 따른 여성성 상실을 페미니즘 관점으로 분석한 후, 유방암으로 인한 육체적 변화가 위축된 부부관계와 상대적 박탈감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고 결국 여성성에 위기감을 초래한다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방암 여성들이 선택하는 복원수술의 욕구와 경험에 부여되는 의미를 분석하여 유방을 여성적 매력과 가치의 기준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문화가 유방암 여성을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Thorne과 Murray(2000)도 한쪽 가슴을 상실한 유방암 여성보다 한쪽 가슴이 없는 아내와 살아야 하는 남

편을 위로하는 서구사회의 단상을 꼬집으면서 서구사회에 형성되어있는 유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구조를 비판하였다. 전통적인 서구 의학에서는 유방암 여성이 갖는 성 정체성, 신체상, 자기 가치감등의 문제를 유방암 탓으로 보지만 유방암은 유방에 대한 사회적 해석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질병이 아닌 사회인식이라 주장한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성으로서의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나타난다. 유방의 상실이 여성성을 훼손하지만 이들의 삶의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유방의 상실이 여성성의 훼손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성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한다는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여성성의 상실의 부정적인 결과로만 해석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방암 여성들은 암에 걸린 것을 매우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특히 암의 원인을 타인, 즉 남편이나 시댁에 전가하였다. 이러한 주제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드러난 주제이다(Im, 2000; Im et al., 2002; Jun, 1994; Landmark & Wahl, 2002; Lim, 2006). 또한 유방암 여성들은 유방암을 진단받은 것에 대해 자신이 박복(薄福)하다거나 천벌을 받았기 때문(Im, 2000)으로, 또는 내가 잘못했다(Im et al., 2002)로 여기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방암에 걸린 원인을 벌(罰)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의 원인에서 찾는 것은 서양 문화와는 다소 다른 반응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 유방암 여성의 경우(Landmark & Wahl, 2002; Thomas-MacLean, 2005), 이들도 비록 유방암 진단으로 인해 심한 감정의 혼돈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유방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한국 유방암 여성들은 유방암에 부정적 의미를 투사하고 있었다. 동시에 자신이 유방암에 걸린 이유를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전통사회가 부여한 여성의 역할, 그리고 그렇게 요구되어 온 역할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이라는 질병이 걸린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었다(Im et al., 2002; Im, 2000). 유방암 여성만의 고유한 경험도 드러나지만, 전반적으로 가부장적 사회의

피해자라는 의식이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유방암 여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이들을 위한 중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3, 4, 5 주제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구조 내에 뿌리박혀있는 여성의 위치와 여성에게 요구되는 며느리, 아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주제이다. 특히 혈통중심주의의 부계 혈연주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가족 서열적 사회관계와 부모 공경과 자식사랑의 서정적 가족주의가 팽대한(Lee, 1999) 구조 속에서의 유방암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 모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나타났다. 이는 유방암 여성들의 삶을 엮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과 삶의 의지를 지탱시켜주는 원동력이었다. 이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제도에서 모성이 여성에게 권위와 신분상승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암묵적인 현상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모성이데올로기 즉 ‘좋은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더불어 ‘여성의 삶’에 대한 특수한 요구를 전제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어머니 정체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여성의 모든 정체성 중에서 가장 우선적 이어야한다는 요구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 죄책감과 직무유기의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Noh, 2001) 본 연구에서도 유방암 진단은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양육을 하지 못하는 직무 유기로 표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성이 회복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어서 여성에게 있어서 모성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모성에적 고통은 우리나라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Blachman(2006)의 ‘Another Morning: Voices of truth and hope from mothers with cancer’에서도 드러나듯이, 문화권을 초월하여 어머니-자녀의 관계가 갖는 의미는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한국 유방암 여성들은 가족 관계 역할 중에서 며느리 역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이는 Chon과 Kim(2003)의 한국 주부의 생활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결과, 주부들이 경험한 관계

스트레스 중 자녀관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시댁 관계인 것과 유사하다. 한국 여성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고유의 경험은 우리 사회 안에 형성되어있는 결혼 후에도 분리되지 못한 가족의 식과 가부장적 전통사회 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부자관계가 주축을 이루던 가족구조가 부부 중심의 핵가족 가족구조로 바뀌고, 며느리들의 학력과 사회진출이 증대되면서 전통적 가족규범이 붕괴되고,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적 기대나 며느리 역할에 대한 시대적 변화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부자관계의 가족구조가 수용되고 있다(Kim & Choi, 2003). 또한 전통적으로 결혼한 여성에게 요구되는 효도가 원가족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남편의 부모 즉, 시댁 부모에게 향한 것이고 며느리는 결혼한 아들대신 부모에게 효도를 실질적인 수행자하는 여성에 불과하다. 그러나 혈연관계가 아닌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효는 정보다는 의무감이 크게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역할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사회에서 며느리는 가정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지며 권리보다는 의무가 많은 반면, 시어머니는 연장자와 부모로서 며느리에게 통제권과 권위를 행사하는 가부장적인 사회(Sung & Lee, 2002)를 잘 드러내고 있다. 며느리의 건강권보다 의무가 더 중요한 제도 속에서 신음하는 유방암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보다 융통성 있는 고부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며느리의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연구한 Park과 Park(2008)의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고부관계의 경험이 누적되면 며느리는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겪게 되는데, 이는 화병과 신체적인 질병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고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위로나 지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 모두의 포기 와 적당한 거리감이 큰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남편의 변화와 지지가 시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이며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적당한 거리감을 가져오게 하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남편의 이러한 적극적 증재는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한 남자의 소중한 아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결과적으로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유방암 여성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부로서의 가사 노동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규범에 순종하는 여성상을 최대의 현모양처(賢母良妻)상으로 교육받아 온 기혼 여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가사분담 정도가 부인이 맡는 경우 89.5%, 남편 1.5%, 공평하게 분담되는 경우가 9.0% 이었다. 이는 가사일의 역할분담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가사와 양육은 기본적으로 여자의 일이며 남편은 아내의 일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도와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취업여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Lee, Um, & Kim, 2007). 참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살펴보면 부인이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도 많은 경우 평상시의 가사분담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가 여성에게 주는 고통을 이해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남편의 역할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6주제는 유방암에 따른 긍정적인 관계변화를 보여준다. 유방암진단과 치료과정동안 보여준 남편의 적극적인 돌봄과 관심을 통해 한국 유방암 여성들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남편의 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친밀해진 부부관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유방암 진단 이후 남편 또한 변화된 아내상을 가지게 되었다. 가족관계에 얽매이던 관계에서 벗어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내인 애정관계로 변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관계가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면서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Lee(2009)가 유방암 환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해 조사한 34편의 국내외 논문을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와 유사하다. 유방암 환자의 적응과 유방암 환자의 적응과 삶의 질에 배우자의 역할과 부부관계 질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것

이다. 나아가 유방암이 당사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넘어서서 더욱 친밀한 관계성을 형성하는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Noh(2003)는 유방암 여성의 가족 내 관계회복을 ‘두터워진 가족애’로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소중한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 주제는 타자 지향적 삶에서 자아 지향적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함께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가족의 소중함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국내외 많은 연구(Im, 2000; Im et al., 2002; Jun, 1994; Landmark & Wahl, 2002; Lim, 2006; Noh, 2003)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후 성장으로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와도 유사하다(Cordova, Cunningham, Carlson & Andrykowsky, 2001; Kim, Kwon, Kim, Lee, & Lee, 2008). 이는 유방암 환자의 삶의 전환을 성장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Bower 등(2005)이 말하는 긍정적 의미와 취약성의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의 대상자인 유방암 여성을 이해할 때 개인의 관점에 국한하지 말고 대상자가 속한 가족과 사회의 맥락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심리 사회적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유방암 여성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배우자의 지지가 자기 존재감을 향상시키므로 배우자를 포함하는 지지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간호중재가 요구된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유방암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한국 유방암 여성들의 질병 체험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7개의 주제들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사회에서 유방암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고통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 성숙한 자유인으로 변해 가는 여정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페미니스트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여성에게 부여된 고정된 역할과 함께 유방암이라는 편견을 뚫고 전통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해온 타자(他者)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그동안 억눌렀던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찾아가는 삶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유방암 여성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제도적 구조와 맞물려서 체험되는가를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방암 여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개인을 위한 자기성찰의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유방암 여성들의 극복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Lee(2009)가 제안한 바와 같이 유방암 여성들의 회복에는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가 강항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부부를 단위로 하는 중재가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사회는 아직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이므로 여성이 갖는 상대적인 부당함에 대해 남성들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이다.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간호사는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여성과 여성건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유방암 환자들이 사회구조적, 제도적인 제약들을 재인식하도록 도움으로써 보다 자유롭게 해방된 진정한 여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Blachman, L. (2006). *Another morning: Voices of truth and hope from mothers with cancer*. California: Seal Press.
- Bower, J. E., Meyerowitz, B. E., Desmond, K. A., Bernaards, C.

- A., Rowland, J. H., & Ganz, P. A. (2005). Perception of positive meaning and vulnerability following breast cancer: Predictors and outcome among long-term breast cancer survivor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9*(3), 236-245.
- Chon, K. K., & Kim, K. H. (2003). Life stress and coping styles of Korean housewive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1), 1-39.
- Colaizzi, P. F. (1978). Psychosoci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Cordova, M. J., Cunningham, L. L., Carlson, C. R., & Andrykowsky, M. A. (2001).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breast cancer: A controlled comparison study. *Health Psychology, 20*(3), 176-185.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Ha, E. H., Seo, J. E., Jeong, J., Yang, J. H., Nam, J. N., Lee, J. E., & Baik, H. J. (2008). Biopsychosocial predictors of depressive disorder in breast cancer pati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4), 961-976.
- Harcourt, D., & Frith, H. (2008). Women's experiences of an altered appearance during chemotherapy.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5), 597-606.
- Howard, A. F., Balneaves, L. G., & Bottorff, J. L. (2007). Ethnocultural women's experiences of breast cancer. *Cancer Nursing, 30*(4), E27-E35.
- Im, E. O. (2000). A feminist critique of breast cancer research among Korean women.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2*(5), 551-570.
- Im, E. O., Lee, E. O., & Park, Y. S. (2002). Korean women's breast cancer experience.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4*(7), 751-771.
- Jun, M. H. (1994). *An experience of life following breast cancer surger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H. J., Kwon, J. H., Kim, N. J., Lee, R., & Lee, K. S. (2008). Posttraumatic growth and related factors in breast cancer survivo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3), 781-799.
- Kim, J. Y., & Choi, S. C. (2003). A qualitative study for Hyo-Shim psychology of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8*(1), 49-67.
- King, K. E. (1994). Method and methodology in feminism-feminist research: What is the differen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 19-22.
- Landmark, B. T., & Wahl, A. (2002). Living with newly diagnosed breast cancer: A qualitative study of 10 women with newly diagnosed breast canc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0*(1), 112-121.
- Lee, I. J. (2009). Breast cancer in martial context: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0*(1), 37-61.
- Lee, K. J., Um, C. C., & Kim, H. K. (2007). Stress and coping of working wives. *Nursing Science, 19*(1), 24-32.
- Lee, Y. J. (1999). Familism and feminism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Human Social Science, 23*(3), 107-122.
- Lee, Y. S. (2007). Psychosocial experience in post-mastectomy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9*(3), 99-24.
- Lim, I. S. (2006). Breast cancer, damaged body and sense of femininity crisi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Women Study, 22*(4), 5-46.
-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09). <http://www.cancer.go.kr/cms/statics/incidence/index.html>
- Noh, Y. J. (2001). A qualitative study of divorced mother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Family Relationship, 6*(2), 43-63.
- Noh, Y. H. (2003). *Breast cancer survivor's conquest exper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Park, S. Y., & Park, T. Y. (2008).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daughters-in-law's relationship with mother-in-law.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4), 55-71.
- Sung, M. O., & Lee, H. J. (2002). The influences of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on the family relationship of the female elderly. *Journal of Korean Welfare for Aged, Winter*, 185-206.
- Thomas-MacLean, R. (2005). Beyond dichotomies of health and illness: life after breast cancer. *Nursing Inquiry, 12*(3), 200-209.
- Thorne, S. E., & Murray, C. (2000). Social constructions of breast cancer. *Health Care Women International, 21*, 141-150.
- Yoo, Y. S., & Cho, O. H. (2001). Spouse support,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intimacy of post-mastectomy pati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y, 15*(1), 148-156.